

비전대 졸업생 50대 만학도 여성 기술사 4관왕 달성

전주비전대학교 졸업생 50대 만학도 여성이 건축사공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사공기기술사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기술사 4관왕을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선애씨

화제의 주인공인 김선애씨는 2015년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 이과과정에 입학해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 학사학위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면서 전공자격증 4개(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했다. 이후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2022년 건축사공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에 합격한 것.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에 따르면 김선애씨는 지난 8월 토목품질시험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 앞서 상반기에 토목사공기기술사 종목을 최종 합격한 바 있다.

김선애씨는 "노력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신념으로 한 톨을 다했다며 '나이와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며 유능한 건설기술인으로 도약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꾸준히 공부하다보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상원(건축과) 교수는 "전주비전대학교 졸업생으로 기술사 4관왕이 탄생해 매우 기쁘다"며 "여성 기술사 4관왕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흔적 없는 일이며, 특히 가정과 직장, 자기 공부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환경부 군산시의원, 재난안전지도사 자격 취득

환경부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2동)이 사단법인 한국이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가 인증하는 재난안전지도사 2급 자격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재난안전지도사란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로서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대처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말한다.

한경봉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지도사를 취득하게 되었다"며 "제28회 임시회 때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태권도학과, 전국대회서 최강 입증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겨루기 선수단이 2~8일까지 7일간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에 참가, 전국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에 따르면 남자 대학부 1조 금메달 1개, 여자 대학부 1조 동메달 2개, 남자 대학부 2조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또 남자 대학부 2조는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대학부 1조 최준표(2년) -87kg 1위, 여자 대학부 1조 정수진(3년) +73kg 3위, 김준희(1년) -62kg 3위, 남자 대학부 2조 김정환(2년) -58kg 1위, 서영배(2년) -68kg 1위, 강재욱(2년) -74kg 1위, 정주호(1년) -80kg 2위 등이다.

또 남자 대학부 2조 서영배(2년) 학생이 최우수 선수상을, 김정균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제13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 김제서 열려

2023년 제13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김제시 김제체육관에서 130여 개 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9일 개최식에는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을 비롯해 흥기용 대한민족족구협회장, 김지홍 전라북도족구협회장, 박천영 김제시족구협회장,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 황배연 김제시의회부위원장, 지역별 족구협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족구대회는 대한민족족구협회가 주최, 전북도와 김제시족구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김제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전국 족구대회여서 의미가 크다. /김제=곽은태 기자

“도민들 곁에서 봉사활동 앞장서 감사”

김관영 도지사, 연인원 760여명 잼버리 기간·행사 종료후 봉사활동에 감사 초청 격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간동안 영지 내외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펴온 의용소방대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 윤정순 회장 등 주요 임원진을 초청해 잼버리 기간을 비롯해 행사 종료 후에도 봉사활동을 이어온 노고를 치하하며 간담을 나눴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원은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찾아다니며 얼음물을 나눠 주고, 몸이 불편한 대원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영지 내 뿐만 아니라 영외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 곳곳마다 의용대

원들이 배치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잼버리 기간은 물론 행사 종료 후에도 잼버리 영지내 구명환과 소화기 수거 등 모두 760여명의 대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회적 재난 약자를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앞장서시는 대원분들이 도민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는 도내 8,220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태풍,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재난·재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마다 봉사의 힘을 발휘해 그 위상도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 농어촌공, 'ESG 그린 꿈사다리'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지난 8일, 꿈나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남원읍성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원지사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ESG 그린 꿈사다리(Green Dream Bridge)를 운영 중이며, 이날 설명회에는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향후 진로에 관심을 두고 공단 소개와 채용정보, 취업 준비 과정 등 다양한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탄소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환경 공동산업을 갖고 기후 위기에 놓인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생활 속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환경적 가치 실현에도 함께하기로 결의했으며,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EM홍공 만들기'를 진행했다. EM홍공은 유용 미생물과 황토를 섞어 반죽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오염된 강이나 하천 바닥에 쌓인 영양염류를 EM홍공에 포함된 미생물로 분해시켜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콘서트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메시지' 진행

2023년 가을의 문턱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삶의 고민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8일 신천저수지에 도마치마 전주교회(담임 최충일, 이하 전주교회)가 개최한 행복콘서트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 메시지'는 북 퍼포먼스, 치어던 공연, '내가 너에게 편지 낭독 및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연극 '경비대사'가 진행돼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4층에 마련된 영혼육 전시회는 총 4관으로 1관부터 내 영혼과의 만남, 2관 '행복의 비결', 3관 '하나님의 사연', 4관 '신의 선물'로 구성됐다. 이어진 콘서트 강연에 나선 경춘철 강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이어 갔다.

그는 "신성한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며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신)께서 자꾸준을 끌어 삼피사 요한신서 1장 2절의 말씀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대, 전북 과학축전 드론 축구 체험 부스 운영

전주대학교 IINC 3.0 사업단(김상진 단장)은 지난 8~10일 전북 어린이청소년체험관 일원에서 열린 2023년 제17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행사에 하나로 드론 축구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주대 IINC 3.0 사업단은 드론 스포츠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드론 축구 체험 부스를 운영, 이종 드론 축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에어비누스로 만들어 진 드론 축구 유소년 경기장에 많은 참가자가 몰려 호응을 얻었다.

김상진 단장은 "과학축전 참여를 통해 전북 청소년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IINC 3.0 사업단은 한국과학드론스포츠포럼의 회장교를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재활 재능기부

전주비전대학교 재활전문 물리치료사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양승훈)은 지난 10일 청소년 광장에서 2023 통일마라톤 성공개회를 위한 스포츠재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IINC 3.0 협약사업체(전북물리치료사협회, 우주통증의학과)와 함께 스포츠 테이핑과 기능적마사지 및 스포츠예방을 위한 임상교육을 실시했다.

통일마라톤대회 한 참가자는 "부상을 방지하고,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활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채성호(3년) 학생은 "재활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준비한 전문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만족해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마약예방 캠페인 동참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남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과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을 지목했다.

전북에서 2018년 마약류사범 수가 140명에서 2022년 274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류사범 중 전북의 비율이 증가(1.1%→1.5%)는 추세이다. 또한 10대에서 마약류사범이 발생하는 등 더이상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다.

이남호 원장은 "개인과 가정,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마약으로부터 전북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전라북도 의 마약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는 11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장 바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등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작별(BYE)을 다짐하는 탈(脫)플라스틱 실천과 착한 소비 실천을 다짐하며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참여 챌린지다.

진안군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강화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관내 음식점, 카페 등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챌린지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문화가 국민에게 널리 퍼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데 군민들께서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정수년 신임 광활면장, 경로당 현장중심 소통행진

김제시 광활면 정수년 신임 면장이 11일 부임 첫 행보로 광활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19개 경로당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소통행진에 나섰다.

정수년 면장은 어르신들께 부임 인사와 함께 경로당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 등을 중심으로 시정현안업무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로당에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경로당을 찾아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 고맙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정수년 면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행보의 첫 발을 내딛은 정수년 면장은 지역 사회단체들과의 소통과 수확기에 접어든 영농현황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면정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은태 기자